



◇ 資源國有化政策을 추진

제2차石油危機후의 석유공급과잉 속에서 쿠웨이트는 국영석유회사 KPC(Kuwait Petroleum Corporation)를 통해 서유럽을 중심으로 소비국들의 정제·판매부문을 적극 買收하는 한편,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 개발을 국제규모로 벌여왔다.

쿠웨이트國營石油社(KPC)

— 産油國의 國營메이저로 成長 —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KPC社는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의 수직통합경영을 하면서, 말하자면 上流部門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있는 「國營메이저」로서 舊세븐·시스터즈에 비견할만한 규모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 회사의 역사는 1934년에 설립된 쿠웨이트·오일·컴퍼니(KOC)로부터 시작되었다. 1934년 英國의 앵글로·페르시안·오일(※ 이란의 석유개발을 위해 세운 회사로서 현재는 BP社로 변신되었음)과 지난 84년에 세브론社에 흡수되었던 걸프·오일社의 2個社가 합병함으로써 KOC 社가 발족되었으며, 그해말에 쿠웨이트政府로부터 石油利權(개발권)을 획득했다. 곧이어 1935년부터 석유 탐사를 개시, 38년에는 부르간地域에서 시굴에 성공했는데 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말미암아 개발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세계대전후의 개발·생산은 매우 순조로워서 1948년 4월에 원유수출을 개시하면서부터 원유생산이 漸增하였으며, 1951년에 이란의 모사데크政權이 석유사업을 國有化한 사건이 난 다음부터는 더욱 增産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46년에는 원유생산량이 16만b/d정도에 불과했으나 1960년에는 KOC産油量이 150만b/d를 넘어섰고, 여기에 더하여 세계대전후에 개발권을 취득한 美國의 아미노 일社와 게티社 그리고 日本의 아라비아石油社등의 생산분을 합하면 쿠웨이트全體의 産油量이 169만b/d에 달해 世界有數의 산유국이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60년대에는 국제석유산업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놓는 石油輸出國機構(OPEC)가 설립되었다. OPEC는, 1950年代末부터 두번에 걸쳐 시행된 原油公示價格(석유

회사에 대한 課稅參照價格)의 메이저에 의한 引下 때문에 이에 對항하기 위해 設立된 것인데, 쿠웨이트는 그 章程會員의 하나였다. 또한 OPEC의 設立은 그러한 直接 理由 뿐만 아니라, 그 以前부터 잠재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던 資源내셔널리즘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쿠웨이트에서도 OPEC가 發족한 1960년에는 쿠웨이트·내셔널·페트롤리움·컴퍼니(KNPC)社가 政府 60% 民間 40%의 株式會社로 設立되었다. KNPC社는 KOC社의 精製工場에서 製造되는 석유제품을 쿠웨이트 國內에 販賣하기 위해 設立되었는데 長기적 목표는 國內의 석유산업 전반에 中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長기목표면에서의 活動은 1960년대 동안에는 그다지 成功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1962년에는 KOC社로부터 政府에 반환된 남부지역의 석유이권을 KNPC社가 획득, 스페인의 에스파놀社와 공동으로 탐사·개발사업을 하기위해 1968년에 쿠웨이트·스페니쉬·페트롤리움·컴퍼니(KSPC)社를 設立하였으나 아무런 발견도 하지 못한채 해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는 사태가 一變했다. 「IMF체제의 붕괴」등으로 尙징되듯이 전후세계의 정치·경제적 變동이 實現되고 世界적으로 석유수급이 緊박화됨을 배경

으로, OPEC은 국제석유회사에 對한 公세를 강화하였는 바 비교적 온건한 아라비아(※ 페르샤)灣岸諸國 中에서는 쿠웨이트가 가장 強경한 태세였다. 1972년, 쿠웨이트를 포함한 아(페)灣岸產油國과 국제석유회사間에 協定(안)이 조인되었다.

즉 KOC등 현지생산회사에 對한 產油國側의 25%사업 참가협정이었는데, 쿠웨이트만은 國회의 반대로 인해 최종 比율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國회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쿠웨이트 國內에서 내셔널리즘 思潮가 높아짐에 따라 석유사업에 對한 사업참가 及 國유화 움직임이 가속됨으로써 드디어 1974년에는 KOC社에 對해 60%사업참가를 실현하고 이어서 75년에는 100%참가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同年에 KNPC社의 民間持分 40%도 政府가 구입하였으며, 70년대 후반을 통해서는 탱커회사·석유화학회사 등에도 國유화·사업참가를 확대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석유관련 各부문을 총괄하기 위해 Kuwait Petroleum Corporation(KPC)社가 國營으로 設立된다.

◇政府의 석유정책 추진기관

KPC社는 1980년 1월27일에 반포된 80년法律 제6호에 근거하여 쿠웨이트國內外에서 탄화수소산업 及 그에 關

〈표·1〉 KPC의 主要子會社

회 사 명	KPC비율	사 업 내 용
① 쿠웨이트·오일·컴퍼니(KOC)	100%	쿠웨이트內탐사·개발, 생산, 정제, 수출
② 쿠웨이트·내셔널·페트롤리움·컴퍼니(KNPC)	100%	정제, 제품수송, 분배, 수출
③ 쿠웨이트·오일·탱커·컴퍼니(KOTC)	100%	원유, 제품, LPG의 해상수송
④ 페트로케미칼·인더스트리즈·컴퍼니(PIC)	100%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판매
⑤ 쿠웨이트·호린·페트롤리움·익스플로레이션·컴퍼니(KFPEC)	100%	쿠웨이트國外의 탐사, 개발, 생산
⑥ 쿠웨이트·인터내셔널·페트롤리움·인베스트먼트·컴퍼니(KIPIC)	70%	석유관련회사에 대한 투자
⑦ 쿠웨이트·산다·웨이·브라운·윌·엔지니어링·앤드·페트롤리움·엔터프라이시스(KSFBEPE)	100%	석유부문의 엔지니어링·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⑧ K.P.C. US 홀딩즈	100%	석유, 가스, 지열의 탐사, 개발, 생산, 청부굴착,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⑨ K.P.C. 인터내셔널 N.V.(KPI)	100%	석유정제 및 제품판매
⑩ 페트로케미칼·인더스트리즈·홀딩즈 N.V.	100%	석유화학관련회사에 대한 투자

런된 모든 사업을 독립적으로 하거나 또는 子會社를 통해 하기위해 설립되었다. 同社는 주식회사형태이지만 주식전체를 쿠웨이트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종합적 경영정책에 대해 정부의 최고석유회의(首長·황태자·부수상·재무장관·석유장관·상공장관·기획장관으로 구성)가 책임을 진다. 여기서 석유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가 최고석유회의의 감독하에 보다 구체적인 운영세부를 실행한다. 이 KPC社는 本册 석유회사연구시리즈에 이미 소개한 기업들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쿠웨이트政府의 석유정책을 총괄적·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인 셈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① 원유, 천연가스, 기타 탄화수소자원의 탐사·개발·생산 ② 원유와 천연가스 및 그것들을 원료로하는 전제품과 부산물들을 저장·정제·처리 ③ 원유, 천연가스, LPG, 기타의 탄화수소, 석유화학을 포함한 化學製品 및 그 부산물의 수송·분배·마케팅 ④ 기타 회사목적달성에 필요한 전사업등 극히 광범위한 활동이다. 아울러 쿠웨이트 및 중립지대에서의 쿠웨이트분 석유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므로 KPC의 역할은 이 석유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된다.

이상의 사업들을 KPC社는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동사의 주요 子會社 가운데 KOC社/KNPC社/PIC社는 각각 쿠웨이트國內의 상류, 하류, 석유화학부문의 조업을 주로 담당하고 KOTC社는 탱커위주의 수송부문을 맡고 있다. 그 이

외의 子會社는 KPC의 해외사업을 담당한다. 즉 ▲ KUFPEC社는 美國을 제외한 전지역의 석유탐사 및 개발 ▲ KSFBEPE社는 산타페·인터내셔널社가 하는 국제적 엔지니어링·프로젝트를 감독·조정한다. 한편 ▲ KPC US홀딩즈社는 美國 산타페·인터내셔널社의 직접親會社로서 주로 美國內의 상류부문과 엔지니어링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 KPC인터내셔널社는 주로 유럽지역에서의 석유정제 및 제품판매가 주요분야이다.

◇ 資源保存政策을 추구

1970년대초에 300만b/d 이상이었던 쿠웨이트의 原油 생산량은 제1차석유위기 이후 200만~250만b/d 수준으로, 다시 80년대에는 100만b/d 정도까지로 감소하였다. 이는 석유자원 고갈 때문이 아니고, 國內에서 資源내셔널리즘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1974년 이후 생산상한선을 自國독자적으로 설정하여 자원을 보존하려는 정책 때문이었다. 그리고 82년이후는 OPEC의 생산협정에 따라 국별할당량을 쿠웨이트가 순수히 준수함으로써 產油量이 줄어든 것이다.

1986년에는 OPEC정책이 시장/판매량 방어노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쿠웨이트도 전년대비 40%이상 增產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년 산유량이 120만b/d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은 同國의 석유확인매장량이 세계2위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가는 920億배럴이나 되고,

〈표-2〉 쿠웨이트의 上流部門

(單位: 百萬배럴, 10億입방피트)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石油埋藏量	67,930	67,730	67,150	67,000	92,710	92,464
天然가스埋藏量	940.2	981.3	965.4	995.6	1,037.8	1,036.5
原油生産量	607.3	411.2	300.2	384.1	424.6	387.4
KOC	508.3	343.4	242.8	312.7	343.5	314.3
KOC와프라	28.8	27.6	24.1	20.4	25.2	26.2
AOC	70.2	40.1	33.4	51.0	55.9	46.8
天然가스生産量*	310.1	223.8	162.7	191.9	205.4	205.9
(利用量*)	260.0	196.4	145.9	170.8	183.4	178.9
原油輸出量	477.0	297.0	134.6	198.7	240.8	173.7

주: *10億입방피트

생산능력도 200만b/d 이상임을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생산수준이었다.

쿠웨이트는 탄화수소자원을 超長期的으로 국가발전에 활용용자 자원보존을 하자는 것이 原油生産政策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또한 KPC社를 통한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石油, 가스의 탐사·개발활동을 추진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다.

KOC社의 탐사활동은 1984년 쿠웨이트 國內에서 2개의 대규모 油田을 발견케 했다. 그 하나는 쿠웨이트市 남쪽의 超輕質油田(* API 36~40도)이며 또 하나는 북쪽의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 소재한 重質油田(* API 13~18도)이다. 이 두 곳의 발견으로 인해 쿠웨이트의 확인매장량은 83년의 670億배럴에서 84년 927億배럴로 단숨에 4割가량이나 증대되었다. 한편 탐사활동의 또 한 가지 중점사항은 원유생산 감소현상으로 말미암아 隨伴 가스生産도 부족해지는 경향에 대처하기위해, 第2疊期 쿠프構造가스田의 가스를 탐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부르간油田下에 있는 同構造에서는 數個孔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 해외석유개발도 확대

해외탐사·개발활동은 KUFPEC社(Kuwait Foreign Petroleum Exploration Co.)와 산타페그룹을 주축으로

추진한다. KUFPEC社는 스위스의 인터내셔널·에너지·디벨로프먼트(IEDC社)를 사들임으로써 세계 13개국에 15개의 탐광허가를 갖게 되었다. 현재의 탐사활동은 이집트/인도네시아/오만/수단/콩고/탄자니아/中國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개발단계에 들어섰다.

한편 산타페·인터내셔널社를 통한 활동은 선진국 중심이다. 同社는 美國에 기반을 두고 탐사, 생산, 수탁굴착, 엔지니어링 등의 부문에서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바, 1981년에 KPC社에게 25億\$로 買收되어 100% 子會社로 개조된 것이다. 그후 同社는 美國에서 석유회사를 사들이고 독자적 탐사활동을 하는 한편, 買收한 子會社를 통해 北海/아일랜드/인도에 진출하였다. 아울러 KPC社 자신도 美國/모로코/파키스탄/바레인 등에서 獨立系石油社 및 國營石油社들과 공동으로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高度化 추진하는 국내정유공장

석유산업 전부문에서 국제규모적인 事業多角化와 統合化를 목표로 한다는 KPC社의 전략은 하류부문활동에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KPC의 하류부문전략의 중심은 국내정제시설을 재편하는 동시에 高度化하는 것이며 주요소비지역(해외시장)의 판매망買收에 있다.

〈표-3〉 쿠웨이트의 국내정제부문

(單位 : 1000b/d)

	1981	1982	1983	1984	1985
石油精製能力	594	594	614	614	614
KOC미나·알·아마디	250	250	270	270	270
KNPC 슈아이바	200	200	200	200	200
KNPC 미나 압둘라	144	144	144	144	144
石油製品生産量	276.3	420.0	468.4	478.9	545.2
휘발유	22.4	27.9	27.4	29.2	-
燈油	36.7	38.2	44.4	44.8	-
溜出燃料油	67.5	114.5	123.2	107.9	-
重油	107.7	168.3	191.8	216.8	-
기타	42.0	71.1	81.5	80.2	-
石油製品輸出量	280.8	370.4	414.3	394.9	511.8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쿠웨이트 국내에는 「미나·알·아마디」, 「슈아이바」, 「미나·압둘라」라는 3개의 정유공장이 있다. 그중 20萬 b/d의 원유처리능력을 갖춘 슈아이바정유공장은 비교적 근래에 건설된 최신공장이어서 처음부터 13만b/d의 減壓蒸溜裝置와 6만7천b/d의 水素化分解裝置를 갖추었다. 그러나 다른 2개소는 특히 미나·알·아마디精油工場은 감압증류장치를 설치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輕質化되어가는 추세에서, 高硫黃이면서 重質인 쿠웨이트原油를 경질제품 중심으로 정제처리하려면 분해장치와 탈황장치를 도입하여 공장시스템을 高度化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나·알·아마디工場의 高度化 계획이 2기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지난 84년에 완료한 제1기확장에서는 3만b/d의 重油脫黃裝置와 가솔린·유니트등이 도입됨으로써 국내산업계에 저유황重油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해외수출제품도 高品質化를 이룩하였다. 이어서 86년에 완공된 제2기확장에서는 접촉분해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최종적인 원유처리능력이 25만b/d에서 27만b/d로 增大되었다.

한편 미나·압둘라工場의 高度化확장도 2기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데 86년중에 거의 완료되었다. 즉 미나·압둘라에는 상압증류능력이 14만4천b/d에서 20만b/d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오커」도 도입하고 탈황능력도 확대시킨 것이다. 이처럼 국내정유공장을 재편·고도화함에 따라 쿠웨이트의 원유처리능력은 1980년 59만b/d에서 87년에는 67만b/d로 확장되었으며 국내 및 해외시장의 수요변동 패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先進國하류부문에 적극진출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 페트로민사의 하류부문 진출이 주로 국내 수출용정유공장의 생산제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있음에 비하여, 쿠웨이트 KPC社は 해외소비시장 현지의 정제시설 및 판매망을 사들임으로써 自國原油 및 제품의 販路를 확보한다는 적극사업이다.

KPC는 83년 2월에 걸프·오일社로부터 베네룩스3國에 소재한 750개 주유소 그리고 정제시설 및 석유화학 시설을 買收한 것을 시작으로, 同年 3월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주유소와 정유공장을 사들이고, 84년 1월에는



◇ KPC사의 「Q8」주유소(유럽)

이탈리아의 주유소 1500개소 및 정유공장을 걸프·오일社로부터 買收한 다음, 벨지움에서도 엘프社계열의 주유소를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KPC社は 유럽內에 3,100個所の 주유소를 보유한 동시에 ▲로테르담의 유로포트(원유처리능력 7만5천b/d) ▲덴마크의 걸프·헤븐(동 8만5천b/d) ▲이탈리아의 베루토니코(동 8만b/d 중 75%보유)라는 3개정유공장과 그 이외에도 석유화학 플랜트 및 윤활유공장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KPC社は 英國/西獨/프랑스라는 유럽의 3대시장에도 진출할 움직임을 보여, 86년에 英國에서 헤이즈·그룹 所有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830개점포의 관리권을 취득한 다음, 이어서 87년 봄에 알트라마社로부터 465개의 주유소를 사들였다. 그리고 西獨과 프랑스에서도 獨立系석유회사와의 영업 제휴를 교섭하고 있다.

또한 KPC로서는 아시아市場이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 않고, 잠재수요면에서도 극히 유망한 시장이다. 현재는 수개국의 국제공황에서 제트연료 판매권을 입수했을 뿐이지만, 美國 Getty Oil社가 Texaco社에게 팔릴 때, Getty의 日本 미쓰비시 石油社 株式持分을 KPC가 취득하려고 힘썼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日本을 포함한 아시아 市場에의 진출도 충분히 예상된다.

1986년 가을 유럽 수개국에서는 종래 걸프·오일社 상표를 사용하던 KPC社주유소들이 일제히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그 새로운 브랜드는 「Q8」즉 쿠웨이트를 뜻하는 것이다. 국제화와 재편성이 요청되고 있는 日本등 아시아 각국에도 어쩌면 KPC社가 진출하여 「Q8」브랜드를 내세운 주유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계속>